사단법인 한국조사협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년 11월 27일 오전 9시부터	매수	3	첨부 자료	4	사진	없음

담당부서	한국조사협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박보미 02-546-2360/kora@ikora.or.kr
		보도자료 문의	대변인 김춘석 010-9525-8416/cskim@hrc.co.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길 11 선우빌딩(우 06787) www.ikora.or.kr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논란에 대한 한국조사협회 입장문

○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규정인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시행**
○ **언론, 정치권, 여심위 등은 ARS 방식의 선거여론조사 왜곡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여야**

□ **한국조사협회는 작금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문제 있는 여론조사 업체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을 경계합니다.**

최근 선거여론조사 조작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이 되는 대상은 모두 ARS를 이용한 조사로, △공직선거법 선관위 신고 예외 규정(108조 3)을 이용하여, △특정 정치성향 전화 DB 활용, △표본 조작 및 가중값 부여 왜곡 등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한 대로 만들어서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조작의혹과 관련된 조사회사는 한국조사협회(회장 조일상) 회원사와 관련이 없는 업체임을 밝히는 바입니다(붙임1 참조).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중 선거여론조사를 시행하는 조사회사는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되어 있고, 여론조사 전후로 '여심위'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조사협회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사협회는 2014년부터 「ARS조사 관련 회원사 행동규범」을 통해 ARS를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ARS조사 수행을 금지하였고, ARS를 시행한 몇몇 회사를 제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 기준」보다 강화한 규정인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2023년 10월에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붙임2 참조).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조사협회의 국민과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 **한국조사협회는 언론, 정치권, '여심위'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한국조사협회는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언론, 정치권, '여심위'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언론은 고품질 여론조사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과학으로서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를 선별하여 보도·논평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은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ARS 등의 여론조사는 기획도, 보도도, 논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붙임3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8조 2 참조). 여론조사가 현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게이트키핑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정치권도 여론과 정치과정을 왜곡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기획도, 시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왜곡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및 정파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조사환경 속에 보다 신뢰성 높은 여론조사를 진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심위'는 현재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보증할 만한 충분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비과학적인 조사방법과 미자격 조사회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소한 공표용 선거여론조사에서는 ARS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한 첩경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 **이상에 대해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합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서우석) 추계학술대회가 11월 29일에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오후 3시40분부터 시작하는 세션에서 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인 한국리서치 김춘석 부문장이 「여론조사 생태계 진단과 조사품질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화면접조사와 ARS를 모두 시행한 경험이 있는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가 「전화면접조사와 ARS 비교」를 발표합니다(붙임4 참조).

[붙임1] 한국조사협회 정회원사 명부

회사명(가나다순)	대표	전화	이메일
글로벌리서치	김범주	02-6253-1400	pfbjkim@globalri.co.kr
나우앤퓨처	장명수	02-717-7552	ceo@nownfuture.co.kr
나이스디앤알	박정우	02-2122-4751	jwpark@nicednr.co.kr
넥스트리서치	강승용	02-735-1000	sykang@nextrnc.com
닐슨아이큐코리아	최경희	02-2122-7101	Kyung-Hee.Choi@nielseniq.com
다이나이타	전민주	02-2051-4895	minjoo.chon@dynata.com
드라마앤컴퍼니	최재호	02-556-4202	dw.joo@dramancompany.com
리서치랩	도정화	02-559-2700	3dojh@relab.net
리서치림	김지숙	02-3015-2100	kjs@relim.co.kr
리서치앤리서치	노규형	02-3484-3000	kyuno@RandR.co.kr
마켓링크	김종호	02-3787-9600	jhkim@marketlink.co.kr
마크로밀엠브레인	최인수	02-3444-4000	cis@embrain.com
메가리서치	안태숙	02-3447-2900	ats@megaresearch.co.kr
메트릭스	나윤정,조일상	02-6244-0700	webmaster@metrix.co.kr
서던포스트	정우성	02-6925-7076	wsjung@southernpost.co.kr
엔알에스	김장호,김진원	02-3446-8077	jkim@neorns.com
엠브레인퍼블릭	이병일	02-2052-6700	bilee@embrain.com
오픈서베이	황희영	02-3019-7800	hy.hwang@opensurvey.co.kr
움트	신남철	02-2109-0450	ncshin@e-umt.com
유니온리서치	최정택	02-2090-1200	jtchoi@unionre.co.kr
인사이트코리아	문준열	02-3483-0500	jymoon@insight-korea.com
입소스코리아	박황례	02-6464-5100	Hwanglye.Park@ipsos.com
지알아이리서치	이범신	02-6263-7001	donald@grikorea.co.kr
칸타코리아	양정열	02-3779-4300	jungyul.yang@kantar.com
컨슈머인사이트	김진국	02-6004-7600	kimjk@consumerinsight.kr
케이스탯리서치	김지연	02-6188-6000	jykim@kstat.co.kr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이정열	02-548-5141	jean@kdn21.co.kr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박준빈,조우철	02-3415-5100	jbpark@kric.com,peterjo@kric.com
코어마인드	이은형	02-2135-8455	ehlee@coremind.co.kr
톨루나	케인박	02-6004-1342	kayne.park@toluna.com
트랜드리서치	김용수	02-3442-0604	yskim@trendmr.com
피앰아이	이창재,조민희	02-2055-3100	mhcho@pmirnc.com
한국갤럽	박재형	02-3702-2100	gallupkorea@gallup.co.kr
한국리서치	노익상	02-3014-1000	hankook@hrc.co.kr
현대리서치	김용섭	02-3218-9600	kys@hdri.co.kr

[붙임2] 한국조사협회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는 언론과 함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버금가는 제4부로서의 위상이 부여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론조사, 특히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회원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의 신뢰를 회복하여 민주 사회에서 여론조사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으로서의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아래 기준이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는 입장이며,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조사(Survey)와 조사자(Researcher) 요건

조사 요건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는 여론 진단을 할 적정 시점에 가치중립적이면서 불편부당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자 요건	조사자는 한국조사협회 주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습과 현장 경험 축적 등을 통해 조사자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득(得)해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아야 한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조사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하며 ARS는 하지 않는다. 전화면접조사와 ARS를 혼용하지도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하여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하는 ARS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통신 환경마저 훼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3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	조사결과가 조사 시점의 여론을 왜곡하지 않도록 항목, 척도, 설문 순서 등을 타당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지는 2명 이상의 조사자가 상호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한다. 설문 문항 수는 응답률과 응답자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문항과 배경문항을 제외한 본문항을 13문항 이하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4 자료수집

조사원 교육	한국조사협회가 규정하는 소기의 교육과정을 거친 조사원을 대상으로, 매 조사 시행 전에 조사개요·항목별 유의사항·조사대상자 응대 방식과 태도 등에 대한 표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조사기간	응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최근 조사환경을 고려하여 통화중·부재중인 전화에 대한 재접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일 이상 조사를 권장한다. 언론사 의뢰 긴급조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일 동안 조사를 할 수도 있으나, 조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재접촉	통화중·부재중인 전화의 경우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하여,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노력한다.
응답률	응답률은 조사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지만, 조사과정 관리의 엄격성을 진단할 주요한 요건이다. 응답률은 국제기준인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 응답률 중 RR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 응답률*접촉률)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전국조사의 경우 최소 4% 이상(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 응답률 10% 이상, 접촉률 30% 이상), RDD를 이용하는 전국조사의 경우 최소 2% 이상(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 응답률 7% 이상, 접촉률 30% 이상)을 달성한다. 한편, 응답률은 문항 수, 가용 전화번호 수, 가중방법, 가중값, 문항 난이도 등과 연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응답자 사례비 지급	전화면접조사 응답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응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우리 사회에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정당 등이 한국조사협회 회원사의 노력에 협조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5 가중값과 결과 활용

가중값	비확률추출인 할당추출 조사 등은 가중값이 1에 수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여심위 기준보다 가중값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확률추출인 단순무작위추출 조사 등은 가중 범위에 구애받지 않되, 확률추출 조사에 기반한 조사 절차와 기준을 준수한다.
결과 제시	조사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한다. 이는 오차가 존재하는 표본조사 결과 해석에 대한 과도한 정확성 신화를 경계하고자 함이다. 이를 우리 사회에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정당 등의 이해와 수용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과 해석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본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이나 연령 등 하위 변수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도 하위 변수 표본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주관적인 추정에 기반한 해석을 삼간다.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2023년 10월 21일부터 위 기준에 따라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를 시행한다.

[붙임3]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치과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여론, 민심, 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함에 있어 이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언론은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전문적인 여론조사는 선거기간 중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당시 자격 미달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준 낮은 조사가 많았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며,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중략>

제8조(금지되는 조사행위)
② 미디어는 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산하·연계 조직이 의뢰하거나 비용을 제공하는 여론조사
2. 조사 대상자의 선택이 조사기관에 의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즉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
3. 기타 개별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

<중략>

출처: 한국기자협회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3)